

# 인식의 혁명적 전환 있어야 환경위기 극복

글 | 박이문 \_ 연세대학교 철학과 특별초빙교수 ynhui@hanafos.com

**한**세기 전만해도 환경 문제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거시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사태를 전망하고 판단할 때 이 문제야말로 인류가 장기적이며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곧 자연파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자연파괴는 곧 문명과 인류존속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호모사피엔스로서 지구에 출현한지 45만 년, 문명의 여명이 단지 10만 년, 아니 농업을 시작한지 1만 년 전 당시의 방식대로 생존했다면 오늘날의 환경 위기, 나아가서는 생태계의 위기는 물론 환경이나 생태계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환경문제가 문명사적 차원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길어야 2차대전이 종식될 무렵에 미국에서 현대 과학기술공학적 산업이 급격한 속도로 발달되었던 즈음이었으며, 그것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많아야 반세기도 채 되지 않는다.

## 환경위기 근본 원인이 과학적 지식·기술 발달(?)

인류가 지난날 살아 온 천문학적인 장구한 세월에 비하면 거의 찰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생긴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2004년 동남아 해안도시를 순식간에 삼켜간 쓰나미처럼, 지난달 중국의 쓰촨성의 모든 것을 매몰시킨 대지진처럼 인간과 더불어 문명 및 자연을 단숨에 파괴할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이런 위기가벼락같이 닥쳐 온 것인가?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환경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18세기에 개발된 여러 가지 생필품의 기계적 대량 생산기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산업사회의 전차적 보편화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대량소비, 자본축적으로 탄생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것이 동반한 물질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적 의식의 해이와 마비, 사회질서의 혼란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것들은 환경위기 원인의 피상적 현상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획기적인 발명과 발견, 그러한 결과로 인간이 갖게 된 300년 전, 아니 100년 전만해도 상상조차할 수 없었던 인간의 힘이였다. 바로 이 힘이 오늘날 문명은 물론 인류의 존속까지도 위협하게 된 환경위기의 근원적 원인이다. 여기서 이런 주장을 좀 더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생물체가 그러하듯이 인간도 처음부터 자신의 생존, 번영, 그리고 향락이라는 원초적 본능의 끝없는 충족을 위해서 자신을 둘러싼 자연적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자연환경의 변형, 훼손 및 파괴는 불가피하며, 다른 동물과 달리 유난히 지능이 발달하여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의 서식지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수 십만 년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키워왔고 그와 병행해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빠르게 더 큰 변형과 파괴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오늘날 우리가 알고, 갖고, 일상생활에서도 필수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대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환경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및 생태계 위기의 구체적 원인은 300년 전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으로 시작하여 20세기의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등의 첨단물리학적 발견과 20세기 후반에 개발되어 21세기 초반에는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이들의 생활필수품이 된 전자통신 등의 첨단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발달이다. 환경위기의 가시적 원인은 한마디로 자연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 더 압축해 말해서, 과학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과학이 근대 서양문화의 발명이라는 점에서 문명의 위기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 오늘의 환경위기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의 서양문화화, 더 정확히 말해서 '근대성'의 토대가 된 합리적인, 즉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뒤집어 말해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또 서양에서의 근대적 문화가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문명의 위기 등과 같은 오늘의 세계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선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 지구상의 절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과학적 사유가 제공하는 허다한 편이를 누리고 만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을 갖고 그것을 규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과학이라는 세계 인식 방법과 과학기술이라는 실용적 기술을 개발한 '근대성', 그러한 정신의 온상인 서양문화 일반, 특히 근대적 서양에 대한 비판이 서양 밖에서만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서양문화의 내부에서도 불꽃같이 퍼져 나와서 서양문화 자체를 통째로 비판하고 해체하려는 사조가 휩쓸었던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잘못된 세계관·가치관이 환경위기 궁극 원인

그러나 환경위기에 대한 위와 같은 진단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채 잘못 내린 것이다. 환경문제의 정확한 원천은 지식으로서의 과학에 있지도 않고 도구나 기술로서의 과학에도 있지 않다. 첫째, 지식과 기술은 그 자체로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들은 사실의 실명이거나 어떤 특정한 일을 해내기 위한 방법일 뿐 가치중립적이다. 둘째, 과학지식과 과학기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무자비한 자연개발, 무제한한 상품의 생산, 물질적 풍요, 무제한한 소비, 인구 증가, 공기와 물의 오염,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핵전쟁이나 사고에 의한 치명적인 모든 것의 파괴와 죽음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필연

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 때 환경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일 수도 있다.

현대 과학기술문명이 지금같이 이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진행된 이유는 인간이 큰 틀에서 멀리 높이 서 있는 산이라는 지구 전체와 미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나무만 바라보고, 생태중심적이지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잘못된 세계관과 오로지 물질적·찰나적 향락을 최고로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에 갇혀서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다. 서양문화를 줄곧 지배해 왔던 위와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은 서양이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 및 군사적·경제적 막강한 힘을 동원하여 17세기 이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세계 전체의 이념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이미 현실화된 '세계화'는 바로 세계의 서양문화, 즉 이념으로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이런 문명사적 과정의 필연적 결과로 인류전체가 당장의 쾌락을 제공하는 잔치, 술, 마약, 담배, 아편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마침내는 스스로 파멸하는 여러 종류의 중독자와 유사한 처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환경위기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을 지배해 온 잘못된 정신, 즉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은 코페르니쿠스적 세계와 가치에 관한 인식의 혁명적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해준다. 환경, 생태계, 문명, 인간의 운명은 오로지 인간의 올바른 현실 판단, 현명한 선택, 그리고 결연한 실천적 의지에만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의 궁극적 책임은 과학지식과 기술, 근대서양, 서양문명, 자본주의, 세계화 그 어느 하나에만 있지 않으며 치유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다. 그것의 책임자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오로지 인류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인가? 먼저 시야를 근시적에서 원시적으로, 세계관을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전환하고, 대자연 앞에 겸허해야 한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의 공유하는 땅이자 집이지 인류의 소유물이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삶의 양식을 소박하고 검소하고 조용하게 바꿔야 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도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0년 간 인간은 자연 앞에 너무 오만했고 너무 많이 먹고 마시며, 축제를 뒤흔기 하면서 너무 떠들고, 너무 자연을 부수며 무모하게 살아 왔던 것은 아닐까? **SD**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불문과 졸업 후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보스턴, 시몬스 대학 및 포항공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특별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